

구윤철 부총리, 중동상황에 따른 석유류 가격 및 유통과정 현장점검 위해 주유소 방문

- 구윤철 부총리, 대전시 주유소 방문해 석유류 가격·수급상황 및 유통과정 점검
- 과도한 가격인상, 가짜 석유 판매, 담합 등 불법행위 엄정대응 강조
- 정부는 중동상황 24시간 모니터링 및 석유판매가격 최고액 지정 등 가용수단 총동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3.6(금) 오후 대전시 유성구의 주유소를 방문해 최근 중동상황에 따른 석유류 가격·수급상황 관련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석유관리원 관계자와 함께, 휘발유·경유 품질검사와 정량판매 여부 등을 점검했다.

구 부총리는 “국가적 위기상황을 틈 타 무분별하게 가격을 올리는 파렴치한 행위는 용납할 수 없으며, 과도한 가격인상이나 품질을 속이는 행위, 담합이나 매점매석 같은 불법행위에는 예외없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또한, “지금 중동상황 등으로 불확실성이 크지만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차분하게 대응해 함께 이겨낼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중동상황 관련 국제 에너지시장과 국내 석유류 가격·수급동향 등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과도한 가격인상이 없도록 범부처 석유시장점검단 가동, 석유사업법상 석유판매가격 최고액 지정 추진 등 가용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다.

담당 부서	민생경제국 물가정책과	책임자 담당자	과 장 사무관	민경신 (044-215-2770) 연정은 (je0903@korea.kr)
-------	----------------	------------	------------	---